용건이 뭐야?

정옥자/서울대 국사학과교수, 규장각관장

나는 대학졸업 후 곧 결혼하였다가 10년만에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연년생의 아들 둘이 —— 여섯 살, 일곱 살 때였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살림하다 아이들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사건으로 치부되었다.

본인의 결단이 아무리 단단하고 남편이 이해해 주어도 주변의 눈총이 곱지 않았다. 어렵게 들어온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끝내기도 전에 생각지도 않게 임신사실을 확인하였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공부를 계속하느냐, 다시 가정으로 들어앉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 우선 아이를 낳고 보자는 쪽으로 남편과 의견을 모으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리포트를 쓸 때는 입덧하느라고 먹지 못해 현기증이 나고 정신집중이 잘 안되어 곤욕을 치렀다. 가정사정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고 일년동안 휴학을 하면서 딸아이를 순산하고 복학하려하니 그사이 서울대는 동숭동에서 관악산 밑으로 이사를 한 뒤였다.

당시 나는 성동구 송정동에 살고 있었으므로 학교에 가는 길은 머나먼 지방에 가는 것같이 느껴졌다. 학교에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괴로운 데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그만둔 줄 알았더니 또 돌아왔느냐? 이쯤해서 그만두지 뭘 그리 악착스럽게 구느냐?"는 뜻의 말을 하였다.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려 잠도 잘 자지 않고 잘 먹지도 않아서 몸은 마르고 새파랗게 날이 서서 모두들 노처녀인줄 알았다고 한다. 한번 방에 틀어박혀 공부에 몰두하면 옆에서 굿을 해도 모를 정도로 책이외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석사논문 쓸 때는 딸아이가 돌을 갓 지난 때로 엄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무릎에서 떨어지질 않아 애를 먹었다. 낮에는 아이와 놀아주고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논문에 매달리다 보면 날밤을 꼴딱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런 과정을 겪고 교수가 된 후엔 더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공부할 일이 많아졌다. 방학동안엔 논문 쓴다고 불철주야 서재에 박혀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서재 문을 빼끔히 열고 들여다보면 "용건이 뭐야?"하면서 눈을 하얗게 흘기는 바람에 질겁을 하고 물러났다는 것이다.

그것도 큰아들의 회고에 의하여 기억을 되살린 것이고 나 자신은 잘 생각나지도 않는 일이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은 "자식이 꼭 용건이 있어야 부모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거냐?"며 가끔 오금을 박곤 한다. 오죽하면 그 당시 애들이 서재 앞을 기웃거리면 남편이 입에 손을 대고 "쉬이! 너희 엄마 신들렸다."며 말렸다는 후일담이다.

이제 그렇게 서럽게(?) 큰 삼남매는 장성하여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동학(同學)의 길을 걷게 된 큰아들은 이해를 넘어 동지가 되었고 나의 협조자가 되었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아이를 셋씩이나 키우는 여자에게 학문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고 응원부대가 되었으니 오직 감사할 따름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학문을 이루어 학자가 되었다한들 아이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충족감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한다. 나의 일은 학문의 길이지만 나의 행복의 원천은 학문에 밀려 엄마의 보살핌에 굶주렸지만 이제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두 아들과 막내딸 등 삼남매이다.